세상의 모든 감각에 대하여 \_

워드 프로그램이 띄운 하얗고 네모난 화면 안, 앙상한 커서(cursor)만이 불안하게 깜박거리고 있다. 채 13인치도 되지 않는 텅 빈 화면은 어쩐지 광활하고, 그 안에 글을 독촉하고 있는 커서는 충분히 부담스럽다. 무거운 커서를 한 칸씩 밀어내며 쓰여질 이 텍스트는 김미라의 영상 작업 <The Sense and Its Double>에 관한 것이다. 해당 작업은 세상과의 접촉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하고 시각화한다. 작품처럼 주변을 동시적으로 감지하며 시작한 이 글은 작품의 특성과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특권은 글이 작품을 대변할 거라는, 관련 사고를 통찰력 있게 전달할 거라는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에 김미라의 작업은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글은 작업을 대변하거나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결국에는 작업에 붙을 글이 시작부터 무기가 될 만한 특권과 오해, 환상의 포기를 공표하는 이유는 그것이 김미라의 작업에 다가가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급했듯, 작가의 작업은 세계와의 접촉을 매개하는 감각을 고찰한다. 작가는 자신의 주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감지되는 감각의 흐름을 수집하고 나름의 언어로 시각화한다. 그렇게 시각화된 세계의 감각은 고정된 해석이 아닌 감각 자체의 공유를 그리고 그것에 관한 사유의 증폭을 고대한다. 다양한 감각을 수집 재조합하는 작업은 정해진 틀 안에 관련 사고를 포획하는 대신 다양한 응답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김미라가 다루는 감각은 작업에 없다. 작업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세계’와 ‘감각’은 작업 바깥에 존재한다.

<The Sense and Its Double>이 시작되는 곳은 갯벌이다. 작업은 광막한 갯벌을 배경으로 “나는 감각을 통해 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갯벌에 서있는 ‘나’는 누구인가? 또 ‘감각’은, ‘세계’는 무엇인가? 작업은 불규칙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비정형의 덩어리가 눈과 입 같은 감각 기관 위에 겹쳐지는 장면으로 이동한다. 영상 속 화자는 “빛, 중력, 근육의 움직임, 공기의 진동, 냄새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선언해버린다. 그리고 바뀐 장면에선 뭉개진 점토가 형체를 바꾸다가 다시 화상채팅을 하고 있는 듯한 남자의 얼굴과 신체 위로 포개진다. 영상 초반에 드러난 비정형의 덩어리, 그리고 그것과 중첩되는 인간의 감각 기관과 온라인 환경 속 개인은 즉각적으로 ‘나’, ‘감각’ 그리고 ‘세계’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며 그것들을 등치시킨다.

영상 속 화자의 심드렁한 주장처럼 우리는 어쩌면 표본화되고 박제화된 경험만으로 직조된 ‘나’도 ‘세계’도 없는 무감각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상이 시각화한 디지털 환경 속 인물, 모니터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개인은 더 이상 모니터 밖을 열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 온라인 망이 연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개인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만의 섬에 로그인한다. 그렇게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무한한 세상의 사건은 타임라인을 흐르며 질식할 듯 범람하는 세계를 동기화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환경 안에서 개인의 경험과 감각은 김미라의 작품 속 뭉개진 점토처럼 구체화되지 않는, 획득 불가능한 상태로 변환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열린 수십 년 전 공연을 보며 타인의 환호와 자신의 감정을 혼동한다. 또 지하철 밖 도시는 그곳이 어디든,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작가의 작업은 외부 세계가 작은 섬 안으로, 내부로 자리를 옮겼음을 헤아리게 한다. 여기서 세계가 내부로 자리를 옮겼다는 주장은 세계와 개인의 감각이 밀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세계 자체가 이미지로, 가상의 객체로 전환되어 납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점점 경험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작가의 작업 속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남자처럼 원하면 어느 세계든 다가갈 수 있다는 만족감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현재가 제공하는 안락함은 가공된 감각이 남기는 약간의 아쉬움을 상쇄하기에 충분할지 모른다.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 속 개인의 경험과 감각을 전경화하며 다층적 사고를 유도한 작업은 중반에 다다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세계가 사라졌을까? 혹은 내가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다양한 질문의 연쇄를 발동시킨다. 작업 속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험과 감각이 재정립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은 더 이상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외부-세계와 내부-개인의 거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각과 경험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개인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일종의 소비자, 피주권자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개인이 언제든 필요한 세계의 경험을 호출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재구성하고 복제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이 비록 가공된 것일지라도 개인은 창조자로서의 절대적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의 연쇄는 영상의 중반부, 점토로 만든 큐브가 무한 증식하고 폭발, 분출하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마치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빅뱅을 가시화하는 듯한 장면은 “사라진 것이 무엇이든, 나는 사실 이것이 기적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이어 방향도 깊이도 가늠할 수 없는 바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큐브 안으로 가뿐히 옮겨지고 배경은 얄팍한 색으로 뒤덮인다. 그리고 그 위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포획한 물고기(이미지)들이 자유롭게 유영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것 모두를 낭자하게 뒤섞으며 시공의 개념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린 장면은 감각 자체를 무한히 확장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온라인-디지털 환경의 또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그렇게 영상은 지속적으로 전유 재조합되며 무한 확장 가능한 온라인 환경 안 감각의 속성을 공유한다. 결국 작가가 제시한 ‘나’와 ‘세계’가 하나의 표본 안에 등치 된 이후의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혼합, 편집, 복제되며 무한의 감각을 재획득하는 과정으로 가시화된다. 이처럼 작가는 작업의 출발지라 볼 수 있는 감각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 안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즉 질문이 기인한 조건 속에 해당 질문을 내던지는 방식으로 ‘나’와 ‘세계’가 사라진 후 확장되는 감각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가 <The Sense and Its Double>에서 보여준 다양한 이미지의 혼합과 재구성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뿐 아니라 본인의 과거 작업을 하나의 시공에 혼합,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그동안 페인팅, 사진, 드로잉, 설치, 판화 등의 다양한 매체로 주변을 감지하고 기록하며 지역성과 정체성을 탐구해 왔다. 작가는 최근 작업에서 그동안 실험해온 이미지의 다양한 권위와 기능을 하나의 매체-영상에 혼합하는데, 이는 비단 세계와의 접촉뿐 아니라 작가의 과거 작업이 경유한 여러 지점들을 떠올리게 한다. 때문에 일련의 과거 작업이 영상 매체 안에서의 매시업과 리믹스를 방법론으로 이접된 것은 아닌지, 그동안 진행해온 지역성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세계와의 접촉이라는 보다 넓은 주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The Sense and Its Double> 역시 다른 작업으로의 변환과 재구성, 혼합과 편재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설명했듯, 작가는 작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미지와 감각을 전유하고 혼합해 왔다. 이는 단일 서사나 명징한 대상의 전달이 아닌 동시적 감각과 현상의 공유 그 자체에 집중한다. 그래서 작업은 이미 만연한 감각과 이미지까지도 기꺼이 수렴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여기서, ‘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꺼낼지 모른다. 저자는 그 자체로 약속된 제도 안에서 인위적으로 개별화되고 사회화된 개념일지 모른다. 우리는 저자를 떠올릴 때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창작하는, 작품 위에 선 절대자를 떠올린다. 김미라는 이러한 저자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듯하다. 동시적으로 감지되는 또 감지되지 않는 파편적 세계에 관한 고찰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작가는 작품 위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닌 감각의 수용자이자 매개자로서 스스로를 설정한다. 바르트가 저자성의 부고를 선언한지 약 60년이 지난 오늘 저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미라는 새로운 창작의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하고 소생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복하고 재정의하는 저자의 개념을 이행한다.

결국 작가는 세계의 감각을 좀 더 정확하게 공유하는 길은 스스로 외부를 인식하는 양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경험주의적 방식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러한 경험이 이미지로 귀결되는 로고스적 체계로 전달 가능한 것인지 자문한다. 주변을 감각하며 다양한 사고와 이미지의 혼합을 시뮬레이션하는 작가의 작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전유 재조합되며 확장 가능한 감각의 속성을 공유한다. 작가는 이 영원 회귀의 방법론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분주하게 세계와의 접촉을 감지하는 작업을 일단은 긍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동일한 감각과 이미지를 반복하며 하나의 개념으로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게 작품의 마지막, 아득한 들판에 선 ‘나’는 감각을 향한 꿈을 다시 시작한다.

권혁규 (독립큐레이터)